

한·미 FTA 대비 축산부문 협상초안

농림부

1 품목별 민감도를 반영한 협상대안 작성

- 품목간 우선순위는 쇠고기>낙농품>돼지고기·닭고기>천연꿀 순으로 설정하고 품목내 민감도를 HS10 단위로 분류
- 대미·대세계 수입실적, 관세율, 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민감도를 분류하여 협상전략 수립
- 품목별 또는 품목간 향후 다양한 양허방안을 패키지로 마련, 협상과정에서 TRQ물량, 관세 감축기간 및 감축폭 등을 조정하여 대응
- 한·칠레 및 한·캐나다 FTA 양허수준을 고려하여 민감도, 수입실적, 관세율 등을 감안한 양허초안 작성(HS10 단위로 총 444개)
- 무관세화(즉시부터 중장기까지) : 실행세율이 10% 미만이거나 수입실적이 많지 않은 품목, 국내 산업기반이 미미한 품목, 원자재 성격의 수입의존 품목
 - 즉시 무관세화 : 산동물(기타 가축류), 종축, 사료원료, 조사료(사료용 근채류, 고관

- 세 종자 제외), 동물성 유지, 빙과류, 원피, 비계 등
- 단계적 무관세화
 - 단기 : 말, 개, 토끼, 꿀벌, 마가린, 아이스크림 등
 - 중기 : 오리, 면양고기, 칠면조고기(냉장), 버터기제조제품, 카세인, 오리고기(냉장), 요쿠르트 등
 - 장기 : 산양고기, 닭고기(냉장), 칠면조고기(냉동), 사료종자, 사료용 근채류, 육즙, 조제분유(코코아함유), 보조사료, 난백 등
- 관세일부감축 : 기존 FTA협상에서 양허제로 분류했으나 민감도가 중간단계이고 대미 수입실적이 많지 않은 품목
 - 식용설육, 오리고기(냉동), 육가공품, 장·위, 조란(닭의 것), 녹용, 녹각 등
- 현행세율 유지 : 현재 대미 수입실적이 많고 향후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민감도 1~2단계인 품목
 - 육우,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 닭고기, 낙농품(분유, 치즈 등), 천연꿀 등


구분	무관세화				관세일부감축	현행관세유지
	즉시	단기	중기	장기		
품목수	208	18	54	58	41	65
비율(%)	46.8	4.1	12.2	14.9	9.2	14.6

2 현행 관세유지품목에 대한 양허방안 검토

현행 관세유지로 분류한 65개 품목은 협상 과정에 따라 장기무관세화, TRQ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활용

- 닭고기(닭 · 오리관련 품목 52개중 5개)
 - 냉동닭고기(4), 난황(1)는 대미 수입실적이 많고 향후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편임.
 - 단,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18~27%)

이며, 기 체결한 FTA 협상결과 등을 감안할 때 TRQ 제공을 미국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세일부 감축 및 장기무관세화 검토

- 관세일부감축 품목 : 닭간장, 닭고기(기타 타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조제 저장품) 닭기타사료
- 장기무관세화 품목 : 닭가슴(냉장), 닭간장(냉장), 닭 500g 이하 미절단(냉장 · 냉동) 

한 · 미 FTA로 축산 최대 1조 원 피해

한 · 미 FTA로 수입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국내 농산품의 평균 가격 하락폭은 축산물 7.8%, 과수 8.2%, 채소 등 5.8%, 곡물(쌀 제외) 60.4% 등으로 나타났다.

8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 · 미 FTA 농업계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연구위원은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축산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3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7.8% 내리는 것으로 전망됐다”며 “품목별 평균 인하폭은 쇠고기 8.7%, 돼지고기 4.8%, 닭고기 9.9% 등”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한 · 미 FTA에 체결에 따른 피해규모는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인 관세가 낮아지면 미국산 수입이 광우병 파동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에 따라 현재 3조 원인 한우

시장은 최대 5천300억 원, 평균 3천600억 원까지 연간 생산액이 줄 것으로 추산됐다.

돼지고기는 연 평균 2천300억 원, 닭고기도 1천 2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종합하면 축산분야의 피해액은 적게는 5천4백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대에 이른다.

결국 축산을 포함한 전체 농업 피해액은 1조5천억 원에서 최대 2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 · 미 FTA 3차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수용가능한 협상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차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5단계(즉시, 단기, 중기, 장기, 예외)로 나누는데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이달 중에 각자 입장을 반영한 농산물 양허안(개방률)을 교환키로 했다.

- 국정브리핑